■ 광주일보·대주건설 공동 '광주·전남 교사 일본연수' ■

/ 규슈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와서 /

"열도에 퍼진 백제의 숨결 가슴깊이 호흡"

역사는 과거로부터 와서 미래를 예견한다.

일본 규슈의 역사문화 탐방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가 미래의 바람을 가져다준다. 3년 전 고흥 안동고분에서는 백제 금관동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일본의 후나야마 고분과 흡사해 백제의 지배세력이 충남과 나주, 고흥 등지에 그 세력을 떨치고 일본까지 진출해주었음을 입증한 중요한 자료였다. 백제에 대한 많은 신화를 안고 역사탐방을 위한 교사들의 작은 여행이 시작됐다.

후쿠오카 형무소엔 윤동주의 혼

부산에서 카멜리아호를 타고 후쿠오카를 향해 출발한 시간은 오후 7시였다. 카멜리아호는 여객정원 522명에 총톤수 2만t이 넘는 선상 호텔이라고 알려진 배다. 전장 170m, 전폭 24m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선상에서 저녁밥을 먹고 들어간 선실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 멀미가 있을 거라는 우려는 간곳없고 창밖을 보고서야 배가 이미 대한해협을 지나치고 있음을 알았다.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밤사이 후쿠오카에 도착해 있었다.

일본은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규슈 지방의 최대 도시가 후쿠오카다. 후쿠오카는 인구 130만에 하카타만에 접한 현청 소재지이며 일본에서 8번째로 큰 도시로 무사의 도시라고 불린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쓴 시인 윤동주는 바로 이 도시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살아있다면 90세의 나이일 텐데 우리의 마음에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있던 그가 유학시절 보았을 당시의 후쿠오카의 하늘도 이랬을까. 온통 비 갠 이후의 청명한 날씨와 맑은 구름이 천상의 날씨처럼 펼쳐져 있었다.

오전에 일본 고대 생활상을 생생하게 복원해놓은 요시노가리 공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토기 등의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후나야마 고분을 둘러보았다. 후나야마 고분에 들려보면 백제의 옛 모습을 일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 발견은 작은 감동을 가져다준다.

구마모토 성 앞에서 기념촬영한 광주·전남 교사 일본연수단.

후나야마 고분서 '일본속 백제' 발견

구마모토로 이동해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구마모토성에 갔다. 임진왜란 침공 이후 진주산성을 보고 모방했다는 이 성은 1601년에서 약 7년 동안 건축이 됐고 이후 1877년에 화재로 소실돼 1960년에 재건됐다. 이후 방문한 세계 최대의 활화산 아소산과 인근의 로프웨이에서 내려다 본 철쭉 정경은 장관이었다.

이튿날 벳푸 유적지인 유노하나, 고마츠 지옥 등을 둘러보았다. 초여름의 비가 내려 아쉬웠지만 조이트래블 여행사의 최금환 사장의 막힘없는 입담과 돌아오는 길에 들려준 예쁜 나가노 유키코 상의 이야기는 잔잔한 기억으로 남았다.

맑은 날 부산에서 보인다는 일본은 역사와 법규를 달리하면서 많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5가지가 없다고 한다.

먼저, 교회가 없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당시 5개조 맹세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는데 그 중 그리스도교를 배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독교 사상이 수용되지 못하게 된 것은 신도라는 종교와 천황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덤이 없는데 화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도로 폭이 우리나라보다 30㎝나 좁아서 그렇다는데 불법주차가 없다.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경찰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한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교회·무덤 등 다섯가지 없어

이틀 동안 온천을 들려 야마나미 통나무형 콘도에서 지냈다. 산속에 새벽을 깨우는 안개와 가슴을 관통하는 맑은 바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친구와 학생들을 동반해 여행한다면 더 없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스승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45명의 교사들에게 역사문화 탐방을 마련해준 광주일보와 대주건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 경 숙
〈운남고 교사〉

전남대 개교 54주년 다채로운 기념식

9일로 개교 54주년을 맞는 전남대(총장 강정채)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남대는 8일 오전 11시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제54주년 개교기념식을 갖고 학술 연구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낸 윤순석(경영학부)·김재녕 교수(화학과)에게 제10회 '용봉학술상'을 수여했다.

전남대 총동창회도 이날 기념식에서 라석찬 홍익병원장·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용봉인 영예대상'을, 개교 54주년을 기념해 세계최고봉인 초모랑마 등정에 성공한 전남대 초모랑마 원정대원 8명에게 '용봉인 영예대상 특별상'을 각각 전달했다.

전남대는 또 이날 오후 7시 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54주년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전남대는 이와 함께 전국 고등학생 국악경연대회를 창설, 10일부터 이틀간 국제회의동 용봉홀과 예술대학 3호관 연주홀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다.

목포대 개교 60주년 기념 선포식 가져

오는 10월 31일로 개교 60주년을 맞는 목포대(총장 임병선)가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목포대는 8일 오전 11시 본관 앞 광장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걸개그림 커팅을 하고 박물관으로 이동해 축시 낭독, 기념사업 소개, 엠블럼 공개 등 60주년 기념 선포식을 가졌다. 가로 7m, 세로 9m의 대형 걸개그림은 미술학과 손영환 교수가 제작한 것으로, 목포대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지구를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그려냈다.

엠블럼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바다로 용솟음치는 물결을 형상화해 대학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전하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목포대는 이외에도 기념우표 발간, 자전거 국토순례, 도민 걷기대회 및 보트대회, 후원의 밤, 취업 박람회, 바둑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인터넷 수업 서울사이버대학교

광주에 호남지역학습관 개소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총장 김수지)가 호남지역 재학생들의 교류확대 및 학습효과 증진 등을 위해 지역학습관을 개소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신세계백화점 인근 호남지역학습관에서 개소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지역학습관 개관은 온라인대학교의 단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교수와 학생, 학생 간의 교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지역 재학생 500여명은 앞으로 지역학습관에서 컴퓨터활용교육은 물론 교수 및 명사들의 특강 및 세미나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동아리 모임과 학습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재학생끼리의 원활한 학습교류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학습관을 확대해 '캠퍼스와 지역학습관이 있는 명문 온라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00년 개교했으며, 현재 5개 학부 13개 학과에 7천200명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 실용학문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학부모가 선정한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 뽑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여대-中 장춘 중의약대

천연약재 이용 화장품 개발키로

국내 대학 최초로 미용과학과를 개설·운영 중인 광주여대(총장 오장원)가 중국 10대 명문 중의약대학교인 장춘 중의약대학교(총장 왕지홍)와 손잡고 천연 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생산에 나선다.

광주여대는 최근 중국 길림성 장춘 중의약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 중의사 자격 취득·천연 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및 생산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장춘 중의약대학은 천연 약재 관련 학문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수준으로, 양 대학의 공동 연구로 천연 약재를 이용한 획기적인 화장품 개발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춘 중의약대학은 백두산 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수천가지의 천연 약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58년 개교한 장춘 중의약대학교는 331명의 교수진과 학부· 석사·박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춘 중국의 중의약대학교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 대학교이다. 11개 학부와 10개 부속연구소 및 4개의 부속병원과 30개에 달하는 실습병원 및 제약공장이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9일)	
이정학	236-0095
●법무사회 법률상담(9일)	
신두식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